

추석 가정예배 순서

사회 : 가족대표

개 식 사 ----- 사 회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셨으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고 신앙 안에 서기 위함입니다. 먼저 그 동안 기쁨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낸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표기도 ----- 가족대표
성경봉독 ----- 창세기 47장 5~10절 ----- 다 같 이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말씀선포 ----- 험악한 나그네 길 ----- 가족대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피할 수 없었던 질문은 “나는 누구 인가?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위해 고민했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질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간교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짜고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움켜잡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간교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가 그리워하던 고향 땅, 부모 형제 품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게 되는 불행한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기근 때문에 그들은 생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고 (43:1), 급기야는 애굽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은 드시어 그렇게 그리워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앞에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삶이 130년 밖에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30년의 야곱의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회상해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상처가 많았던 세월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말년까지도 한곳에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 다녔던 야곱, 이제 노년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여전히 떠돌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정착시킬 곳이 없습니다. 비록 한곳에 정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착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인생의 나그네 여도, 야곱은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를 만날 때 그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7절), 나오면서 다시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10절) 얼마나 아름다운 나그네 입니까? 비록 세상에 마음을 둘 곳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축복할 수 있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눈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그네 삶을 우리의 목표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 삶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험악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의 나그네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 2021년 추석 가정예배 >

찬 송 가 -----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성교회**

담임목사 이 성 오 (Pastor Rev. Rhie Seong Oh. D. Min)
0761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방화동) www.kumsung.org
(교회)2661-1004, 1009, 1045 (FAX)2662-0206 (목양실)2661-9022